

第270回國會 政治關係法特別委員會會議錄 第 10 號
(臨時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8年1月3日(木)
場 所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審査된案件

o 의사진행의 건 1

(14시36분 개의)

○위원장 이상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정 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아무쪼록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의 건

(14시38분)

○위원장 이상배 바쁜 연초입니다마는 지난해에 우리 위원회가 활동한 결과 합의한 내용과 4월 총선에 대비한 선거구 획정 등을 포함해서 정치관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3월 31일까지로 연장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생각으로는 여야 간에, 교섭단체 간에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꼭 개선해

야 할 사안을 추가해서 심사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일정과 운영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 있으면 말씀을 듣고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배 윤호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호중 위원 윤호중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첫 회의에 이렇게 함께 해 주신 이상배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 모두 인사 올립니다. 새해에는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매우 어려운 선거관리 업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잡음이나 문제 없이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신 선관위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그 노고를 치하해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정치관계법특위를 운영을 하면서 무려 약 27개 항목의 선거법 개정 사항을 여야 간에 합의를 해 놓고 막판에 선거법 처리를 하지 못해서 선거법 개정 이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못한 이전의 제도하에서 대선을 치른 것은 저희 정치관계법특위 위원 전체가 정말 스스로 반성도 하고 또 앞으로의 운영에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앞으로 법 개정 사안들에 대해서 충실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이번 총선에서는 이전의 다른 선거보다 훨씬 더 정치

개혁의 측면에서 진전된 그러한 선거 문화가 꽃피워질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거구 획정 문제가 대단히 시급해 보입니다. 아마도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는 데 그 시한을 넘겨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국회의장께 요청을 해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그 획정위원회의 안이 저희 특위로 넘어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정치관계법특위의 위원 구성 비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대통합민주신당의 현재 의석수는 142명입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128명인데요. 현재 정치관계법특위의 위원수는 신당이 8명, 한나라당이 9명입니다. 그래서 의석비 47.65%인 신당은 특위 위원 구성비가 40%에 불과하고 의석비가 42.95%인 한나라당은 현재 의석비가 45%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석비에 비해서 특위 위원 구성비가 역전되어 있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저희 당의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저 역시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한나라당 측의 위원 구성의 조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대비한 선거법 개정 활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께서 한나라당 위원 또 한나라당 원내대표님들과도 좀 상의를 해 주셔서 의석비를 좀 맞춰 주셨으면 하는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배** 다음 안경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경률 위원** 안경률 위원입니다.

우선 선관위 총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지난번 대선 관리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고 이제 선거 문화가 상당히 정착이 되어 가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앞으로 좋은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정말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윤호중 위원님께서 우리 특위의 정수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

희들이 그동안 이 특위를 처음 구성할 때의 인원을 그대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의석수 변동이 생기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당 원내대표끼리 협의를 해서 적절히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좀 접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우리 특위 전체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선거관계법이라든지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충분히 논의를 하기에 좀 부적절한데 일단 오늘은 간담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지난번에 우리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제1·제2·제3 소위에서 합의했던 27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음 특위가 열릴 때 합의해서 처리할 부분은 처리하고 또 화급하지 않은 부분은 미루더라도 일단 다음에는 꼭 그것을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또 상황 변경이 좀 생겼으니까 추가로 더 입법할 문제가 있는지도, 아까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2·3 소위가 적절하게 회의를 소집해서 추가로 검토해서 특위 전체회의에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1·2·3 소위 위원장께서 적절히 위원회를 소집해서 임시국회의 소집 이전에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법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마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실무적으로 선거 관계자끼리 상당히 불편하거나 또는 실제 현장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규칙의 적용 문제에 있어서 현장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칙이나 내부 시행하는 어떤 방침이 현장에 맞지 않는 부분은 않는 대로 좀 검토를 하고, 또 앞으로 선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당 실무자와 선관위 실무자들끼리 깊숙이 좀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또 어떻게 규칙을 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안들을 좀 만들어서 다음 특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는 나름대로 실무적인 안을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알겠습니다.

○안경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배 다른 말씀 안 계시지요?

○윤호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배 또 있어요?

○윤호중 위원 예.

○위원장 이상배 말씀하세요, 윤호중 위원님.

○윤호중 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안경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무래도 이것이…… 이전에 저희가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던 선거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이것이 국회안건의 어떤 관례랄까 이런 걸로 보면 공직선거법 개정안 또 정당법 개정안, 정치관계법 개정안 이것은 각각 단일의 안건이라서 앞으로 저희가 또 소위에서 논의하게 되는 개정안이 있다면 이것이 이전에 합의되었던 안과 하나의 안건으로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를테면 지금 현재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그 안건을, 기 합의된 것은 또 충분히 존중이 될 테니까요, 소위로 다시 재회부를 해 주시면 추가로 합의되는 것을 덧붙여서 그래서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 전에 다시 재상정을 하게 되는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성영 위원 제가 말씀 좀……

○위원장 이상배 주성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성영 위원 한나라당의 주성영 위원입니다.

지나간 일이 있을 때 지나간 일을 끄집어내 가지고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 잊어버리고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관계특별위원회가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립니다.

그러한 전제 위에서 우선 신당 쪽의 간사님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선출이 안 된 상태입니까?

○윤호중 위원 안 된 상태입니다.

○주성영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정치 일정을 볼 때 총선이 이제 100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현실적으로 간사 협의를 중심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은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당에서 간사 선

임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원 조정하는 문제는 이 위원회가 발족할 당시에는 그 당시 의석수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의석수가 변했으니까, 앞으로도 또 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반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여기에 직권상정 돼 있는 법안 말씀을 하셨는데 상정이 된 것은 합법적입니다. 다만 그 처리 문제는 신당의 간사가 선임되면 양당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난번 우리 특위가 진행돼 오는 과정에서 김효석 원내대표께서 일부 우리 재외동포들하고 식사하면서, 그 과정이 여기서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총선에 재외동포 선거권을 주겠다 또 줘야 된다, 그 당시 한나라당이 발목 잡아서 못 주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있는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4월 9일 총선에 재외동포들 선거권 문제를, 지금도 목말라하고 있고 그 당시 신당 원내대표께서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능하면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 간에…… 인원수 배정은 좀 바뀌겠습니다마는 마음을 열고 원만하게 우리 특위 운영을 하는 것이 국민들 뜻이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킨 뜻에 부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고맙습니다.

○양형일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하실 말씀이 계세요?

○양형일 위원 예.

○위원장 이상배 양형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형일 위원 광주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왔습니다. 국회에서 새해 첫 회의인데, 공식회의인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를 앓고 계십니다. 특히 대통합민주신당 쪽에서도 저하고 우리 윤 위원님 두 사람만 나와 있는 것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위원님 말씀대로 다 살아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전문위원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무총장님 이하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감사합니다.

○**양형일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기 싸움하고 어떤 정략적 입장에서 법안이나 사안을 볼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직권상정 하신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여기의 위원 수의 조정 문제라든지 기타 법안에 있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떤 당리당락에도 매이지 않고 법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시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회의 때부터는 사소한 문제로 서로 이거 양보하라, 저거 양보하라 하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절충안을 가지시고……

저희들도 곧 정식으로 위원회에서 의결 절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내적으로 이제까지 사실상 간사 역을 윤호중 위원님이 맡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 위원들의 뜻을 모아서 간사를 선임해서 위원장님께 통보해 드리면 위원장님이 양당 간사 불려서 다음 전체회의 때는 이런저런 얘기가 안 나오고 합리적으로 의안들이 처리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배** 고맙습니다.

또 다른 말씀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여기서 빨리 생략하고……

○**위원장 이상배**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은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사양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국회의장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빨리 논의가 되고 거기서 결정이 되면 다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또 논의를 하는 그런 순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양당 간사 분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사실상 윤호중 위원께서 간사십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간사인데 아직 우리 위원회에서 선출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는 많은 위원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꼭 간사가 선출이 되고 또 간사 간에 원만한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 수 문제는, 그것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통합신당이 따로따로 있을 때 그때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 이렇게—지난 7월입니다—3당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정치관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은 열린우리당, 국제경기지원특별위원회장은 중도통합민주당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 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치관계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고, 그때 한나라당이 아홉, 열린우리당이 다섯 위원 또 중도통합민주당이 두 분 위원 또 비교섭단체가…… 정치관계특별위원회의 성격상 각 정당 대표들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네 분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경기특별위원회는 역시 20명인데 한나라당이 10명, 열린우리당이 9명 또 중도통합민주당이……

이게 아닙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이 10명,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아홉 분, 그다음에 비교섭에서 한 분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마는 예결특별위원회는 50명 중에 한나라당이 22인, 열린우리당이 12인, 중도통합민주당이 6인, 비교섭이 10인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의, 교섭단체대표 간의 얘기는 ‘이때 합의된 사항이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정치관계특별위원회만 별도로 떼어서 보면 아까 주성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교섭단체 인원수가 달라졌으니까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 수도 달라지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쪽의, 양당 원내대표끼리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양당 간사께서 촉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도 같이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형일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회의 때부터는 정말 마음을 비우고 총선 내지는 다음 지방선거가 잘될 수 있도록, 또 법적 장치를 잘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이, 바쁘시더라도 최대한 다 참석을 해서 가지고 회의 운영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회의 참석이 어려우면 위원을 교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정에 따라서. 바쁘신 분을 어떻게 억지로 우리 위원회에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양당 간사께서 잘 대처를 해주시면 저는 거기에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27개 사항이 여기 전체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이것은 양당 간사께서 잘 협의를 해 주십시오. 여기서 추가로 소위원회를 해 가지고 논의해서 합의된 사항이 여기에 와서 기왕에 상정된 사항들과 같이 논의를 하니까 논의를 해서 같이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특히 앞으로 추가될 사항은 재외국민 선거권 부여 이런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시고, 선거관리위원회 고현철 위원장님 또 조영식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과 관계관 여러분들이 노고가 많았습니다. 선거를 아주 훌륭하게 잘 치렀습니다. 앞으로 총선에서도 이렇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위원회 안에서 어떤 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이라든가…… 영은 없죠? 규칙만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예.

○위원장 이상배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법으로 할 사항은 또 건의를 해 주시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조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배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에 대한 결론이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 특별위원회가 남았습니다. 4년 동안 국회에서 임기를 같이하셨는데 우리가 모든 면에서 원숙한 단계가 됐습니다. 우리 마지막 작품을 선거법관계특별위원회에서 잘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오셨는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정말 고맙습니다, 먼 길 또 참석을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기현 김정훈 박세환 안경률
양형일 윤호중 이상배 이인영
주성영

○출장 위원(1인)

정진섭

○청가 위원(1인)

정진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전문위원 백환기

○정부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조영식
법제실장 이종우

【보고사항】

○의안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발의)

(2007. 12. 10 안상수 의원 외 127인 발의)

12월 11일 회부됨